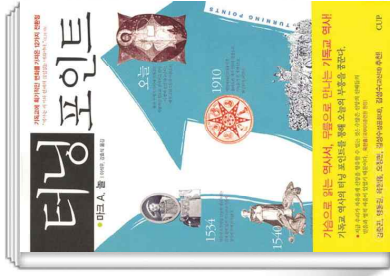




기독교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12가지 전환점

터닝 포인트

6. 각주용



마크 A. 놀 저 | 이석우 역 | OUP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12가지 사건

과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12가지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하여, 그토록 중요한 12가지 사건의 전말을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깊이와 폭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런 궁금증과 기대감을 충분히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담으로 역사 공부의 재미도 일깨워 준다. 본인을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로 소개하는 이 책의 저자 마크 놀(Mark A. Noll, 1946-)은 27년간 휘튼대학에서 역사 및 교회사학을 가르치다가 노들담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역사학자이다.

이 책은 평신도와 입문 과정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과거의 기독교에 대해 알게 함으로 그들을 도우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는 책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왜 과거의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이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흥미와 도움을 주는가?"로 책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를 선정해서 고찰하는가?"로 내용의 제시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는 기독교 역사를 아는 것이 유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하나님

기독교의 터닝 포인트

저자가 선택한 12가지 터닝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첫번째는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생명력을 갖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두번째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로, 이단의 도전을 타파하고 정경을 정리함으로써, 오늘날 정경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세번째는 451년 칼케돈 공의회로, 기독교와 신앙의 기초를 다진 중요한 신조가 만들어졌다.

네번째는 500년 베네딕토 수도회칙으로, 수도원 정신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야 한다는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다섯번째는 800년 샤를마뉴의 대관식으로, 기독교 제국이 유럽 전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여섯번째는 1054년 동로마 총대주교의 교황 사절단 파면으로, 로마가 동방과 정교회의 분열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일곱번째는 1521년 보름스 국화로, 마틴 루터가 쾰른 5세 앞에서 그의 신앙적 신념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현재 개신교의 추종들이 되고 있다.

여덟번째는 1534년 영국의 수장령으로, 영국 국왕이 프로테스탄트나 카톨릭 성직자의 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아홉번째는 1540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예수회 설립으로, 카톨릭의 부흥으로 복음이 세계 신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열번째는 1788년 존 웨슬리 형제의 극적인 회심으로, 기독교의 영적 회복과 갱신의 계기가 되었다.

열한번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유럽 기독교 체구의 종말과 함께 보다 넓은 기독교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열두번째는 1910년 에든버러 신교대회로, 이후 불타오른 세계 신교의 열정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책에 대한 개인적 포인트

이 책 한 권으로 기독교 역사 전체를 훑을 수 있다. 위에 제시된 12가지 터닝포인트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유대교에 그 시작점이 놓여있는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교와 구별되게 되었고 그 과정은 어떠한지, 현재 내가 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예수가 가진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볼 것인지, 인성과 신성의 다른 통합 형태는 종교-국가 관계를 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로마카톨릭, 정교회, 프로테스탄트는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유럽에서 번성하던 기독교가 퍼져 나가기 된 계기는 무엇인지, 왜 18세기 들어 유럽에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여파는 무엇인지, 왜 20세기 초 신교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지, 20세기 말 로마카톨릭, 정교회, 프로테스탄트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각 사건의 역사의 맥락과 이해관계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의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복장에 보이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 과정의 중심축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름만 들었던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가정 정경과 감독체도를 다룰 때에는 아타나시우스와 아레타나스의 글을, 니케아 공의회를 다룰 때는 니케아 신조를, 수도원을 다룰 때에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장 신발에 대한 글을, 로마 교황의 권위를 다룰 때는 그레고리 대교황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동서 교회의 분열을 다룰 때는 제2차 니케아 공회와 정교회-카톨릭 관계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종교개혁을 다룰 때는 루터의 글을, 그 외 아리스투스, 로욜라, 존 웨슬러, 칼디엄 개리 등과 같은 신앙인들의 글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글을 읽다보면 수백 년 혹은 천 년 전 사람들이 마치 현재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과 같아 느껴지면서, 해당 사건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 책에서 다루어는 다른 하나는 책의 시작과 각 장의 마지막에 수록된 질문이다. 특히하게도 이 질문들은 저자의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교회사람들과 나눔을 하던 독자(목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각 장은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많아서 한 번 읽어서는 그 핵심을 잡기 어려운데, 각 장 마지막에 있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누구든 동참한다면 책의 권으로 이천여 년의 기독교 역사와 핵심 줄거리를 깨달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가 왜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도 얻으리라 감히 확신한다.

간우용 고려대학교 교수와 출판 이후 폴스콜링, 대학교육, 인시에 관련된 일을 하였다. 학생들이 진전적으로 성장하고 배려 소망만을 가지기 위한 대학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더 공부하고자 현재 동대학원 고등교육학 박사과정에 있다.